# 최세진의 생애와 업적

# 정 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들어가기

조선시대의 가장 뛰어난 어문학자였던 최세진은 국어와 중국어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국어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니 중인계급의 역관 출신인 그는 양반사대부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국어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기었다. 먼저 그의 일생을 간단히 연보로 보이면 다음과같다.

세조 11년(1465)경에 역관(譯官) 최발(崔襏)의 아들로 태어남.

성종 17년(1486) 사역원(司譯院) 역과에 합격.

성종 17년(1486)~연산군 9년(1503) 사역원 강이습독관(講肄習讀官)으로 한 어 교육에 종사.

연산군 9년(1503) 8월 봉세자(封世子) 별시(別試)에 2등 2인으로 합격.

연산군 10년(1504) 9월 갑자사화(甲子士禍)로 파방, 즉 봉세자별시의 합격이 취소됨

연산군 10년(1504) 12월 익명서(匿名書) 투척의 의혹을 받았으나 승지(承旨)

권규(權鈞)의 발명으로 무사함

- 연산군 12년(1506) 3월 어전(御前) 통역의 공로로 홍패(紅牌)를 환급(景給) 받음 파방(罷榜)이 취소되고 다시 사역원의 갓이습독관 이됨
- 중종 2년(1507) 연산군의 사위사(辭位使)와 중종의 승습사(承襲使)를 수행하 여 중국에 감
- 중종 4년(1509) 1월 상중(喪中) 작첩(作妾)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강이습 독관을 면함
- 중종 10년(1515) 11월 사역원의 한학 교수, 승문원의 훈회 겸 습독관으로 한 어와 한이문(漢吏文)의 교육에 임함
- 중종 12년(1517) 승문원 참교, 사역원 한학교수에 재임명,

11월 『사성통해(四聲通解)』 완성.

- 12월 내섞시(內瞻寺) 정(正)에 임명되었으나 대간의 탄핵으 로 파직. 예빈시(禮賓寺)의 부정(副正)으로 좌천.
- 중종 13년(1518) 4월 예빈시 부정으로 있는 최세진을 대간(臺諫)이 탄핵함. 7월 주청사(奏請使)와 성절사(聖節使)의 사행을 수행하여 북경 에 감
- 중종 15년(1520) 4월 사역원 정(正)에 임명됨. 다시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무사함.
- 중종 16년(1521) 연초에 북경에 감. 채녀(採女) 사건으로 대간의 탄핵을 받 았으나 영의정 남곤(南袞)의 변호로 무사함
- 중종 19년(1524) 2월에 『세자친영의주(世子親迎儀註)』와 『책빈의주(册嬪儀 計)』의 번역을 명 받음 벼슬은 군자감(軍資監)의 정
- 중종 22년(1527) 4월 『훈몽자회(訓蒙字會)』를 완성함.
- 중종 25년(1530) 12월 『황극경세서집(皇極經世書集)』을 진상함. 첨지중추부 사의 직에 있음.
- 중종 31년(1536) 12월 병환이 들어 출사를 못함. 그로 인하여 조정에서는 사 대외교에 많은 차질이 생김
- 중종 32년(1537) 12월 『운회옥편(韻會玉篇)』과 『소학편몽(小學便蒙)』을 저술 하여 임금께 진상하여 안구마(鞍具馬)와 술을 하사 받

음. 벼슬은 상호군(上護軍).

즛좃 34년(1539) 5월 승문원 제조로서 『대유대주의(大儒大奏議)』 2권과 『황 극경세설(皇極經世說)』 12권을 진상함.

중종 35년(1540) 10월 다시 병석에 누웠음.

즛좃 36년(1541) 6월 중국 남경의 지도인 『경성지(京城志)』와 『여효경(女孝 經)』. 그리고 지도 한 축을 임금께 올림.

즛좃 37년(1542) 2월 10일 최세진이 사망, 벼슬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 府事)였음.

## 2. 최세진의 생애

최세진은 집안이 한미(寒微)하여 그의 생애는 조선왕조실록과 『통문관지(通 文館志) 및 『국조방목(國朝榜目)』 등에 의하여 조금씩 알려졌을 뿐이고 출생 연대와 가계(家系) 등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전술한 『중종실록』의 기사 에 의하여 최세진은 중종 37년(1542) 2월 신유(辛酉, 10일)에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권5) 연산군 9년(1503) 8 웤의 봇세자별시(對冊子別試) 방목에는 2등 2인으로 합격한 최세진에 대하여 "習讀崔世珍 公瑞 父正潑"이란 기사가 있다. 그리고 그와 동방(同榜)으로 합격 한 김안국(金安國)이 최세진을 위하여 쓴 만시구(挽詩句)에 "逆旅浮生七十翁" 이란 표현에 의거하여 최세진은 자(字)가 공서(公瑞)이며 괴산(槐山) 사람으로 사역원(司譯院) 정(正--正3品)을 지낸 최발(崔潑)의 아들로 보았고 70세를 살 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중종실록』에 기재된 최세진의 사망일로부터 70년을 거꾸로 계산하여 성종 4년(1473)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방종현: 1954/144). 이것이 오늘날 학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최세진의 출생 연대다.

그러나 이숭녕(1976/86~103)에서는 전술한 『국조방목』의 봉세자별시 방목에 "講肄習讀崔世珍 字公瑞 同知 丙午員 父正潑(하략)"이란 기사를 주목하여 여기 의 '丙午貝'을 '丙午生貝'으로 보아 최세진이 성종 병오(丙午, 1486)의 생원시(生 員試)에 합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왜냐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최세진이 성종 4년(1473)에 출생하였다면 성종 병오의 생원시에 합격했을 때에는 나이가 불과 14세가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보아서 방종현(1954)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 이다. 필자는 『통문관지(通文館志)』(권7, 人物)의 '崔世珍'조에 "崔世珍精於華語 兼通史文 成廟朝中院科選 補講肄習讀官—최세진은 중국어에 정통하고 한이문에 능통하였다. 성종조의 원과(사역원의 역과를 말함-필자 주)에 선발되어 강이습 독관으로 보임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을 뿐 아니라 그의 가계(家系)가 역관 집안임을 감안하여 전술한 성종년간의 합격은 생원시가 아니라 원과(院科), 즉 사역원(司譯院) 역과(譯科) 합격으로 보고자 한다.

졸저(1990)에 의하면 조선시대 사역원에서 실시하는 역과는 2단계 선발로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었으며, 문과와 같이 식년시(式年試)와 더불어 증광시(增廣試), 대증광시(大增廣試)라는 별시(別試)가 있었다고 한다. 또 역과의 경우에는 사역원의 역생(譯生)들이 17세에 초시, 20세에 복시에 응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가 만일 역과 초시에 합격한 것이라면 14세라도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복시에 합격한 것이라면 20세 전후에 응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20세의 나이에 역과 복시에 합격한 것이 『통문관지』의 기사에 보이는 "成廟朝中院科選"이고 그 사실을 『국조방목』에 "丙午員"이라고 한 것이라면, 그는 성종 병오(丙午, 1486)에 역과 복시에 합격한 것이며 그로부터 20년을 소급하면 세조 11년(1465)에 출생한 것이 된다. 또한 『중종실록』의 기사와 같이 중종 37년(1542)에 사망하였다면 그는 77세를 산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김안국의 만시(挽詩)에 '逆旋浮生七十翁'이라는 구절은 최세진이 70을 살았다는 뜻도 있지만 70을 바라보는 김안국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있다. 최세진이 작고할 때에 그는 64세이었다. 참고로 김안국의 『모재집(慕齋集)』(권3 29장 앞)에 전하는 '崔同知世环挽'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逆旅浮生七十翁(잠깐 다녀가는 뜬구름 같은 인생 70의 노인이)

親知凋落寄孤躬(친한 이는 모두 사라져 이 몸만이 고독하게 남아 있구나)

登名四紀幾更變(과거 급제에 이름을 올린 지 40년, 그 동안 몇 사람이 변을 당했는가?)

餘榜三人又失公(동방 가운데 남은 것은 셋인데 또 공을 잃었으니)

爲命自今誰共討(이제부터 사대문서를 지을 때에 누구와 더불어 토론하리오?)1)

<sup>1) &</sup>quot;爲命自今誰共討"의 '爲命'은 외교문서의 작성을 말하는 것으로 『論語』'憲問'편에 "子曰 爲命 裨諶草創之,世叔討論之,行人子羽修飾之,東里子產潤色之--공자가 말씀

輯書裨後世推功(그에게는 책을 지어 후세에 도움을 주는 공이 있으나) 嗟吾後死終無益(슬프다 나는 죽은 뒤에 아무런 이익됨이 없으니) 淚洒東風慟不窮(눈물을 동풍에 뿌리며 소리내어 울기를 그칠 수가 없도다)

이 만시를 보면 대과의 방에 오른 지 40년(四紀)이란 글귀가 보여 역시 최세진의 죽음이 봉세자별시의 대과에 합격한 연산군 9년(1503)으로부터 40년 후인 중종 37년(1542)의 일임을 말하고 있다. 김안국이 생원시, 즉 초시(初試)에 합격한 것은 전술한 『국조방목』의 기록에 의하면 연산군 신유식년시(辛酉式年試, 1501년 시행)의 일이다. 그는 성종 9년(1478)에 출생하였으므로 23세 되던 해의일이며 대과(大科)에 합격한 것은 3년 후의 일로서 그의 나이 26세의 일이다. 당시 최세진은 36세로서 10년의 차이가 있었으나 동방(同榜)이 되었으며 이후 김안국은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어 박사(博士), 부수찬(副修撰), 부교리(副校理) 등을 역임하면서 최세진과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

최세진은 역관 출신의 중인가계(中人家系)로서, 전술한 『국조방목』이나 『국조문과방목』에도 그의 조부나 증조부, 외조부, 장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는 부친을 따라 사역원에 입속하여 한어를 학습하였고 성종조에 사역원에서 시행한 역과(譯科)에 선발되어 강이습독관(講肄習讀官-한어 교사)이 되었다. 그는 역과에 합격하여 사역원에 출사한 이후 한어 역관으로 활약하였으며 그가 질정관(質正官)이 되어 중국에 다녀온 일에 대하여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최세진은 연산군 9년(1503) 5월에 사역원 제조(提調) 이세좌(李世佐)의 천거로 중국에서 온 사신(使臣)에게 한어를 배웠으며, 이어서 8월에 전술한 봉세자(對世子) 별시(別試)에 응과하여 합격하였다. 이 과거에는 한어와 한이문의 학습을 권장하기 위하여 한이과(漢吏科)를 병시(幷試)하였는데 최세진은 이에 합격하여 문과 급제자와 동방(同榜)의 영광을 얻은 것이다.

하시기를 위명, 즉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심이 처음 짓고 세숙이 이를 토론하고 역관 자우가 이를 수식하고 동리의 자산이 이를 윤색하여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어 여러 단계를 거쳐 문서가 작성됨을 말하고 있다. 최세진은 한이문에 능통하여 늘 사대문서를 지을 때에 이를 주관하였으므로 세숙에 비견하여 '討論'하는 사람으로 본 것이다.

최세진은 봉세자별시에 급제한 이후 승문원(承文院)에 출사하였으나 연산군 10년 9월에 이세좌가 갑자사화(甲子士嗣)로 처형되자(『연산군 일기』 권56, 연산군 10년 12월조의 기사), 그의 천거를 받은 바 있는 최세진의 급제도 파방(罷榜)이 되었다. 거기다가 파방 이후에 익명서(匿名書)의 투척자로 의심을 받았으나 다행히 승지(承旨) 권균(權鈞)이 변명하여 겨우 국문(鞠問)을 면하였다. 그러나 후일 최세진은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 어전에서 통역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패를 환급받았다. 즉 연산군 12년 3월 13일 중국의 사신이 와서 왕을 뵙겠다고 하였으나 마땅한 통사(通事)가 없어 최세진이 이를 담당하였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파방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약 2개월에 걸친 자격정지였으나 최세진은 이 때문에 학문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연산군 대에는 다른 모든 학문 분야와 같이 역학(譯學)도 침체되었고 이 시대의 최세진도 별다른 학문적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최세진의 학문 활동은 중종 대에 들어와서 활기를 찾는다.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최세진은 연산군의 사위사(辭位使)인 김응기(金應箕)와 중종의 승습사(承襲使)인 임유겸(任由謙)이 북경에 갈 때에 질정관으로 동행하여 많은 활약을 한다(『중종실록』 중종 2년 2월 근丑조의 기사 참조). 이후부터 최세진에 대한 중종의 총애는 각별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문신들의 시기와 모함이 잇달았다. 그 후에 최세진은 한어 교육에 전념하였고 점차 그의 한이문에 대한 지식이 인정되어 동반(東班)으로 천전(遷轉)하게 되었으며 문신의 반열에 들게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역원의 한학 교수와 승문원의 훈회(訓誨) 겸 습독관으로서 후학의 교육에 전념하게 된다(『중종실록』 중종 10년 11월 丙申조의 기사 참조).

중종 12년(1517) 11월에 『사성통해(四聲通解)』를 완성하였는데 이 때에 그의 벼슬은 사역원 한학 교수겸 승문원(承文院)의 참교(參校, 종3품)로서 내섬시(內贍寺)의 부정(副正)을 겸임하였다. 같은 해 12월 6일에 그는 내섬시(內贍寺) 정 (正. 정3품 당하관)으로 승진하였다.2) 그러나 이 때에도 문신의 관직을 역관

<sup>2)</sup> 내섬시(內贍寺)는 태조 1년에 설치했던 덕천고(德泉庫)를 태종 3년에 개칭한 것이다. 여러 궁전에 대한 공상품이나 2품 이상에게 주는 술, 왜인(倭人)과 여진인에게 주는 음식과 직포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호조(戶曹)에 소속되었으며 정3품 당하관이 정(正)을 맡았다.

출신에게 제수하는 것에 대한 대간의 탄핵이 있었다. 이 때의 탄핵은 '종 천비 (千非)'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은 내관(內官)인 이평(李坪)과 강석손 (姜碩孫) 등이 사온서(司醞署)의 여종인 천비를 심사도 하지 않고 함부로 궁중을 출입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에 천비가 쌀을 가지고 나가다가 체포되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사온서는 술을 만들어 내는 관청이고 내섬시는 그 술을 공급하는 기관이어서 천비의 잘못을 내섬시의 장관인 최세진에게 묻게 된 것이다.

이 때에 문신들은 다시 한번 최세진을 경솔하고 미천해서 장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탄핵하여 천비의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신분이 양반 사대부가 아님을 문제로 삼았다. 춘추관의 사관(史官)들도 최세진에 대하여 '성품이 본시 탐비 (貪鄙)하나 한어에 능통하여 가업을 잃지 않고 요행히 과거에 올라 벼슬길을 열었으며, 통사나 습독관을 선발할 때에 그 권세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라고 동조하였다(『중종실록』 중종 12년 12월 丁未 및 戊申조 기사 참조). 이로 써 그가 중인(中人)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재물을 향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신들의 시기가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종 천비의 사 건으로 불거진 최세진의 탄핵은 마침내 그를 예빈시(禮賓寺)의 부정(副正, 종3 품)으로 강등시키고 만다.

이후에도 최세진에 대한 문신들의 탄핵은 계속되어 여러 차례 그를 벼슬에서 몰아내려고 하였으나 중종은 끝내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최세진이 한어에 능통하여 명과의 교섭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정도 그를 파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의 탄핵이 과격하였음은 실록을 작성하는 춘추관의 사관(史官)들도 인정하고 있다. 즉『중종실록』중종 13년 4월 무자(戊子)조에 "사신(史臣)은 논한다. (중략) 근일에 와서 언론을 담당한 자가 지금의 쌓인 폐단을 밉게 보아 하루아침에 없애고 싶은 생각을 하나 한갓 공의만 믿고 과격하게 논란하여 너무 지나치게 탄핵한다. (중략) 위로 군덕(君德)을 보충하고 아래로 민심을 진정시켜 치화(治化)를 밝히는 것이 참으로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종 15년에 최세진은 사역원(司譯院) 정(正, 정3품)이 되었다. 문신들의 탄핵은 이 때에도 계속되었으나(『중종실록』 중종 15년 4월 乙亥조 기사 참조) 이때의 문신들의 탄핵은 그가 잘못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최세진의 한어와 한이문에 대한 탁월한 실력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열등의식에 대한 절투에서 연유된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한 예로써, 『중종실록』 중종 15년 4월 을해(乙亥)조의 기사에 남곤이 그를 변호한 내용을 들 수 있다. 즉 대간 유형(兪炯)이 경연(經筵)에서 최세진의 인품이 한 관사의 장관이 될 수 없다고 탄핵한 것에 대하여 당시 이 경연의 영사(領事)였던 남곤이 변호하기를 "육시칠감(六寺七監)의 일은 정(正)이 통솔하며 그 직위는 참의(參議)의 디음에 가려 써야한다는 말은 참으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이 전에 최세진과 함께 북경에 갔었는데 그 사람됨과 학문이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한이문과 한어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의 문담(文談)도 잘 알아들었으니 그 지식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그의 학식과 인품이 결코 천박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춘추관의 사관(史官)들도 최세진의 탄핵이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후부터 최세진에 대한 대간의 탄핵은 수그러들고 그의 한어에 대한 실력은 더욱 인정을 받아서 중용이 되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다. 중종 13년 7월에 주청사(奏請使)로 가는 남곤 (南袞)·이자(李耔)와 성절사(聖節使)로 가는 방유녕(方有寧) 등과 함께 최세진도 질정관으로 중국에 가게 되었으며 그 때 최세진의 서열은 삼사(三使)에 버금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종 시대의 명(明)과의 접촉에서 그는 어전 통역을 비롯하여 외교문서의 해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절차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잠시라도 그 직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중종실록』 중종 15년 3월 丙午조 기사참조). 당시 최세진은 승문원에서 역관 이화종(李和宗)과 함께 명에 보내는 모든 사대의 문서를 검토하였으며 두 사람이 일시에 승문원을 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중국과의 접촉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더욱이 이화종이 연로하여 은퇴한 다음에는 오로지 최세진 혼자 명과의 사대외교를 전담하게 되었다.

중종 16년(1521) 초에 최세진은 질정관으로 다시 북경에 다녀왔다. 그런데 그가 들은 '명(明)이 공녀(貢女)를 원한다'는 정보를 조정대신에게 전하자, 조선은 이를 위하여 곧 채녀(採女)가 있으리라는 유언비어가 장안에 퍼져 일대 소동이 일어난다. 소위 채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은 최세진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좌의정 남곤(南袞)이 변호하여 겨우 무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명에 파견되는 통사(通事)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이 사행에서 돌아오면서 그는 중종에게 소요건(逍遙巾)과 『성학심법(聖學心法)』을 구하여 바쳤다.

중종 19년(1524) 2월에 임금은 예조(禮曹)의 주청에 따라 최세진에게 『세자 친영의주(世子親迎儀註)』와 『책빈의주(册嬪儀註)』를 번역하도록 명하였다. 이 때에 그의 벼슬은 군자감(軍資監)의 정(正, 정3품 당하관)이었다. 또 중종 22년 (1527) 3월 10일(정해)에는 하이문(漢吏文)을 익히는 관원을 전정(殿庭)에 모 아 이문정시(東文庭試)를 보았는데 최세진 등 5인이 합격하였다(『중종실록』중 종 22년 3월 丁亥조 기사 참조). 이 때의 합격으로 최세진은 품계가 올라 절충 장군(折衝將軍,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술한 『통문관지』 (권7 이물)의 '최세진'조에 "(전략)嘉靖丙戌以東文庭試第— 特陞堂 F(하략)—가 정 볏숩(1526)에 이무젓시가 있었는데 1등을 하여 특별히 당상관에 승진하 다-"라는 기사가 있다.3)

같은 해 4월에는 『훈몽자회(訓蒙字會)』를 편찬하였고 10월에는 겸사복장(兼 司僕將, 종2품)에 임명되었다. 중종 23년(1528) 1월에는 최세진 이외에 한어와 하이문을 아는 자가 없음을 걱정하는 정광필·심정·이행 등의 계문이 있었으 며 같은 해 6월에는 중국에 보내는 차비문(差備文)의 작성으로 최세진을 급히 불렀다는 기사가 있다(『중종실록』중종 23년 6월 戊午조 기사 참조).

중종 25년(1530) 12월에 최세진은 『황극경세서집람(皇極經世書集覽)』을 임금 께 바쳤는데, 이 때의 벼슬은 일시 현직에서 물러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 事, 정3품)였다. 그러나 중종 27년(1532) 9월 12일에 『번역여훈(飜譯女訓)』을 저작하여 임금에게 바칠 때에는 오위(五衛)의 장(將, 종2품)으로 승진하여 다시 실직에 복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종 31년(1536) 12월에는 중국에서 온 사신의 통역을 위하여 상중(喪中)인 최세진이 천거되었다. 그는 이미 노쇠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그때 겨우 상복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어전통사 로서 그를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기사가 『중종실록』(중종 31년 12월 壬午 조)에 실려 있다. 또 같은 해 12월 11일의 기사에는 최세진이 병들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많은 차질이 있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12일에는 사역워(司譯院) 제조(提調)였던 김안로(金安老)가 한어 교육을 강화 하고 인재양성에 힘써야 하겠다는 주청이 있었으니 최세진이 없으면 명과의 접

<sup>3) 『</sup>중종실록』과 『통문관지』의 기사가 1년씩 차이가 나는 것은 각기 다른 기록에 의 거한 때문이다. 『통문관지』의 기사는 『패관잡기(稗官雜記)』에 의거한 것이다.

촉이 불가능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최세진의 병은 그 이듬해 1월까지 계속 되었다.

중종 32년(1537) 12월 15일에는 상호군(上護軍) 최세진이 『운회옥편(韻會玉篇)』과 『소학편몽(小學便蒙)』을 저술하여 임금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중종은 이것을 높이 평가하여 상으로 안장이 갖추어진 말과 술을 지급하였고 첨지중추부사를 제수하게 된 것이다. 또 중종 34년(1539) 5월 17일에는 부호군(副護軍) 최세진이 『대유대주의(大儒大奏議)』 2권과 『황극경세설(皇極經世說)』 12권을 임금에게 바치니 중종은 상으로 술을 내려 주었고 품계를 올렸다는 기사가 있다. 그리하여 그는 승문원(承文院) 제조(提調, 종2품)로서 오위장(五衛將, 종2품)이 되었는데 역시 이 때에도 대간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중종은 대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숙마(熟馬) 1필을 상으로 최세진에게 내림으로써,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이 어떠한가를 보였다.

같은 해 7월 24일에는 승문원에서 중국에 사은사(謝恩使)를 보내지 않고 동지사(冬至使)의 출발 일을 개정하는 일을 의논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때에 승문원 도제조(都提調) 영의정 윤은보(尹殷輔)를 비롯한 조정의 중신들과함께 오위장(五衛將) 최세진의 이름이 보인다. 특히 이때에는 동방(同榜) 김안국이 좌참찬(左參贊)으로 함께 의논에 참가하였다. 또 이 해 8월 7일에는 이문정시(東文庭試)를 보았는데 최세진이 수석으로 뽑혀 특별히 가자(架子)하였다는 기사가 실록에 나타난다. 아마도 이 때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의 직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전술한 『통문관지』의 같은 곳에 "(전략)己亥又試第一 陸嘉善(하략)--(중종) 기해년(1539)에 또 시험을 보아 1등을 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에 승진하다—"라는 기사가 있다.

중종 35년(1540)에는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니 10월 13일자 실록의 기사에는 중국에서 보내 온 『문견등록(閒見謄錄)』이 한이문이 섞여 있어 해독하기어려우므로 최세진에게 읽히려 하였으나 그가 병으로 입궐할 수 없어서 다른이문학관(東文學官)으로 질정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 때에 그의 나이는이미 75세를 넘었다. 중종 36년(1541) 6월에 그는 중국 남경의 궁궐과 도성(都城), 산천을 그린 『경성도지(京城圖志)』와『여효경(女孝經)』4), 그리고 지도 1

<sup>4) 『</sup>여효경(女孝經)』은 진막(陣邈)의 아내 정씨가 지은 것으로 『효경(孝經)』의 장수를 모방하여 찬집(撰集)한 것임, 그림도 있고 전(傳)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삼강

축을 진상하였는데 임금은 숙마 1필을 하사하여 이에 답례하였다.

중종 37년(1542) 2월 10일에 최세진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때 그의 벼슬은 상술한 동지중추부사였다. 실록에 그의 죽음을 기재하면서 "최세진은 미천한 가 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썼으며 더욱이 한어(漢語)에 정통하였 다. 과거에 급제하여서는 모든 사대에 관한 이문(吏文)을 맡아 보았고 벼슬이 2 품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언해효경(診解孝經)』과 『훈몽자회』, 『이문집람(吏文 輯覽)』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라는 평을 남겼다. 출신은 비록 한미하였지만 오로지 학문에 몰두하여 입신출세한 의지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최세진의 업적

그의 학문 활동은 역관으로서의 한어와 한이문(漢吏文)의 연구 및 그 교육. 그리고 우리 한자음의 연구와 한글의 보급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한어 회화에 대한 연구는 그가 승문원(承文院)의 훈회(訓誨) 겸 습독관 (習讀官)으로 있을 때에 사역원의 한어 회화 강독 교재인『노걸대』(상ㆍ하)와 『박통사』(상·중·하)를 번역하고 이들의 주석서인『노박집람(老朴集覽)』(1권) 을 저술한 것이다. 이 한어 교재의 번역(飜譯)은 한자 하나 하나의 한어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전사하는 것이었으며 좌우에 발음을 붙였는데 하나는 운서음이었 고 하나는 실제 발음으로 알려졌다. 이 『노박집람』은 최근 원대 한어를 반영한 원간 『노걸대』가 발견됨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높게 인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표준발음사전인 『사성통해』도 편찬하였다. 훈민정음 제 정 당시에도 이미 중국어 발음사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홍무정운(洪武正韻)』 을 역훈하였으며 이를 축약하여 신숙주가 『사성통고(四聲通攷)』를 편찬한 바가 있다.『사성통해』는 위의 두 중국어 발음사전을 개정한 것으로『노걸대』와『박 통사』의 번역에서 두 사전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어 새로운 발음 사전의 필요성 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수정하여 『사성통해』를 편찬한 것이다. 세종 조에 시작되어 단종 3년에 완성한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은 편찬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운서였지만 최세진 시대에는 이미 무용지물에 가까울 정도로 옛

행실도(三綱行實圖)』와 같았다고 함 『중종실록』 중종 36년 6월 壬申조의 『여효경』 주를 참조.

발음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최세진은 먼저 『속침흥무정운(續添洪武正韻)』을 짓고 이어서 『사성통해』를 편찬하면서 그 말미에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例)'(이하 '老朴凡例'로 약칭)를 붙여서 『흥문정운역훈』의 발음을 『사성통해』에서 수정한 이유를 밝혔다. 즉 '노박범례(老朴凡例)'는 『노걸대』, 『박통사』의 번역에서 왜 『사성통고』의 발음 전사를 따르지 않고 번역 『노걸대』, 『박통사』의 오른쪽에 붙인 주음과 같이 독자적인 한어 발음 전사를 보였는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었다(졸고: 1995). 여기에서 최세진은 우리말과 중국어의 차이, 특히 성조의 차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예빈시(禮賓寺)에 근무할 때의 경험을 살려 그가 군자감(軍資監) 정(正)으로 있던 중종 19년(1524)에 『세자친영의주(世子親迎儀註)』 및 『책빈의주(册嬪儀註)』를 번역하였다. 이 두 책은 궁중의 예절과 법도를 규정한 것으로 중국의 규범에 맞춘 것이어서 최세진의 한어 지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중종 22년(1527)에는 한자 교육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를 편찬하였으며 이 때의 벼슬은 충무위(忠武衛) 부호군(副護軍)에 품계(品階)가 절충장군(折衝 將軍, 정3품 당상관)이었다. 중종 27년(1532)에는 『번역여훈(飜譯女訓)』을 저술 하여 임금께 바쳤는데 이 책은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되었다. 중종 32년 (1537)에는 『운회옥편(韻會玉篇)』(2권)과 『소학편몽(小學便蒙)』(4권)을 저술하 여 임금께 바쳤으며 하이문의 교육을 위하『이문집람(吏文輯覽)』을 저작하였다. 『운회옥편』과『소학편몽』은 모두 한자 학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세진이 이 를 진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운회』는 있으나 『옥편』이 없기 때문에 상고하 여 보기 어려우므로 신이 글자의 유(類)를 모아 『운회옥편』을 만들어 바칩니다. 만약 간행하도록 하신다면 글자를 상고하는데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소학』으로 자제를 가르치는데 내편(內篇)은 모두가 본받을 만한 성현의 일로 이루어졌지만 외편(外篇)은 아이들이 배우는데 긴요하지 않은 듯 하고 또한 두루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신이 그 가운데 본받을 만한 일을 유 (類)대로 뽑아 4권으로 만들어 바칩니다. 본편(本篇)에서는 더하거나 줄인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편리하고 쉬우니 만약 간행할 것으로 명하 신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중종실록』 중종 32년 12월 庚申조)라고 하여 이 두 책의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두 책은 중

종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쉽게 깨우칠 수 있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데도 매우 편리하게 되어서 최세진이 유념하여 책을 만든 것이 진실로 가상하다'(『중 종실록』 같은 곳)라는 평가와 같이 한자 학습에 매우 편리한 자전(字典)이요 착고서였다

『운회옥편』과 『소학편몽』을 저술할 때는 상호군(上護軍)의 벼슬을 지냈다. 최세진이 오위장(五衞將)이라든지 부호군(副護軍). 상호군(卜護軍) 등의 군직 (軍職)을 지내는 것은 조선조에서 역관들에게는 서반(西班)의 직을 제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서책(書册)을 제작한 공로로 조정에서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하였고 역관으로서는 최 고위직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종2품)에 승진하였다.

이상 그의 업적을 정리하면 첫째로는 한어(漢語)의 연구와 그 교육이 그의 중요한 연구과제였으며 둘째로는 한자음 연구와 한글의 보급에 관심을 가졌음 을 알 수 있다. 이 각각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상론될 것이다.

# 4. 후세에 미친 영향

최세진의 업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둘로 나누어 한어의 연구와 교육이 그 첫째이고 한자음 연구와 한글의 보급이 그 다음이었다. 그는 사역원 의 한어 학습 교재를 정비하고 그가 훈민정음으로 『노걸대』・『박통사』를 번역 한 방법은 훗날 사역원의 다른 외국어 학습 교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모든 역 학서들이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표기하고 그 뜻을 언해하기에 이른다. 실로 최세 진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후민정음을 창제할 때에 기대한 바와 같이 외국 어 발음전사의 기호로서 훈민정음을 이용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외국어 학습에 괄목한 발전이 있었고 사역원의 역학서(譯學書)가 모두 정비되는 결과를 낳았 다. 오늘날 국어와 해당 외국어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 역학서는 최세진에 의 하여 당시 가장 과학적인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으로 발음이 전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최세진은 한자음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 한자음, 즉 동음(東音)을 정 리하였으며 이로 『훈몽자회』를 편찬하여 널리 교육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 '언 문자모'를 부재하여 한글 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훈민정음을 제정할 때에 한자음 정리를 염두에 두고 문자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동국정운(東國正韻)』이후 한자음 표기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최세진은 한자의 한어음(漢語音)과 동음(東音)을 구별하여 우리 한자음을 정비한 것이다. '언문 자모'는 한글 자모의 순서를 정리하여 정착시켰으며 자모의 명칭을 정하였고 이두로 신문자 사용법을 설명하여 한글을 보급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 사용의 전체적인 검토와 재평가를 시도한 것으로 매우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방종현(1954). 「訓蒙字會攷」. 『東方學志』제1호. 이숭녕(1976). 『혁신국어학사』. 서울 : 박영사.

졸저(1990). 『司譯院 譯科試券 研究』.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졸고(1995). 「'飜譯老朴凡例'의 國音·漢音·諺音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제30호.